

# 프로그램의 效率性

利用者프로그램의 종류와 규모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多樣하다. 적게는 프로그램 명령어 10단어 이내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하면 때로는 數萬에서 수십만 단어의 명령어를 나열하여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적은 단어의 명령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효율화의 여지가 매우 적겠으나 단어수가 많은 프로그램일수록 표준화와 효율화정도에 따라 투자비용에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수년전 美國南部의 작은 지방은행에 들어서 이 은행의 전산요원들과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관해 토론을 한 일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과 많은 의견의 차이와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 韓國이나 日本의 은행에서 전산요원을 수백명씩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그들은 우선 이해하지 못하였다. 日本의 주요은행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합온라인 시스템개발에 2백~5백명의 전산요원이 투입되고 3~5년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됐다는 사실을 소개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도 50명이내의 요원으로 1년이내에 개발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을 보고 거리감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하나의 예로서 워싱턴 DC에 있는 소규모의 저축은행에서는 불과 10명이내의



## 조상치

외환은행 신당동지점장

요원으로 은행예금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는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보통예금 시스템의 명령어 수를 물으니 불과 1천단어 규모라고 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보통예금 시스템은 적어도 3만단어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컴퓨터를 다같이 활용하면서 한쪽에서는 수십배의 어려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개발자체는 물론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운영상의 애로사항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西洋의 기계를 東洋式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의 의식구조를 점차 표준화함으로써 컴퓨터이용의 효율화를 기해나가야 하겠다.